

고부살해등 흉악범셋 사형선고

94.10.19

서울고법 형사5부는 18일 봉명
산업 구본국 사장 집에 들어가 구
씨의 부인 정희숙(46)씨 등 2명을
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선고
를 받은 피고인 정동순(27)씨의
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사형을
선고했다. 부산지법 제3형사부도
이날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의 처
를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한
이진찬(49·경북 경주시 성동동 71)
씨와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경비
원을 살해하고 경비원의 딸(15)을
강간한 김동운(21·부산 북구 덕포
1동)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
살인죄와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
형을 선고했다. 이수윤 하성봉 기자